

‘착시’ 뒤의 기막힌 함정 <당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>

- 박소정-

당신은 당신의 눈을 믿을 수 있는가. 정상인은 시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의심하지 않는다. 하지만 이미지, 물체, 움직임 등을 지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, 그 과정에는 수많은 함정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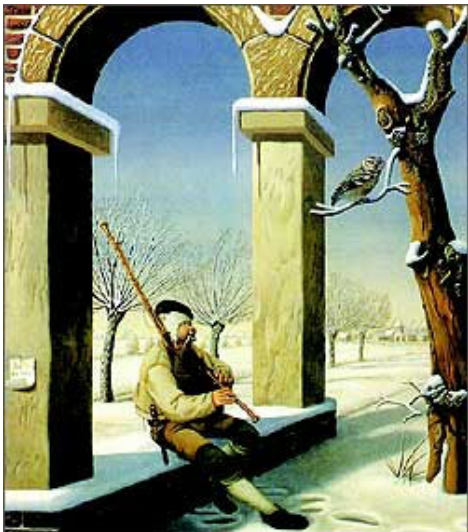
최근 출간된 <당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>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그림들을 인지심리학과 시각과학의 입장에서 모아 한권의 책으로 만든 것으로, ‘뒤집힌 체스판’, ‘얼굴을 맞댄 이집트인’ 등 착시의 고전적인 작품들부터 알려지지 않은 최근작들까지 150여점의 착시 예술품을 싣고 있다. 이 책에 소개된 그림들을 통해 당신의 눈을 시험해보시실 수 있을 것입니다.



< 그림 1 >

“두 사람은 행복할까?”

불행할까? 행복해 보인다고? 그렇다면 그림을 뒤집어보자. 그들이 아직도 웃고 있는가? ‘구애와 결혼’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19세기 독일의 어느 불만에 찬 남편 또는 아내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. ‘구애’할 때는 행복하지만 ‘결혼’은 불행한 것. 혹시 그림이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닐까?



< 그림 2 >

“왼쪽에 있는 기둥은 어떻게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?”

이 작품은 벨기에 작가 요스 데 메이의 ‘플랑드르의 어느 겨울날에 흐르는 우울한 선율’이라는 그림이다. 그는 어느 겨울날이 놀라운 장면을 포착했다. 맨 왼쪽의 기둥은 가운데 기둥과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 나와 있다. 어떻게 이런 일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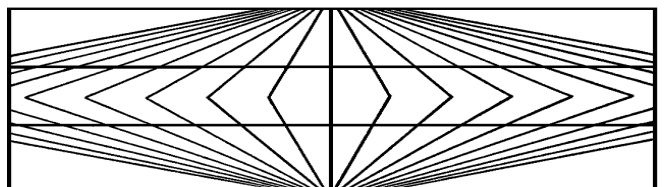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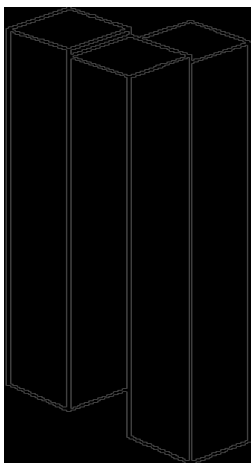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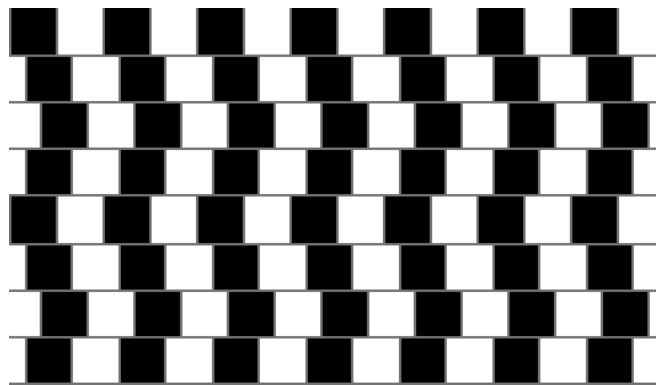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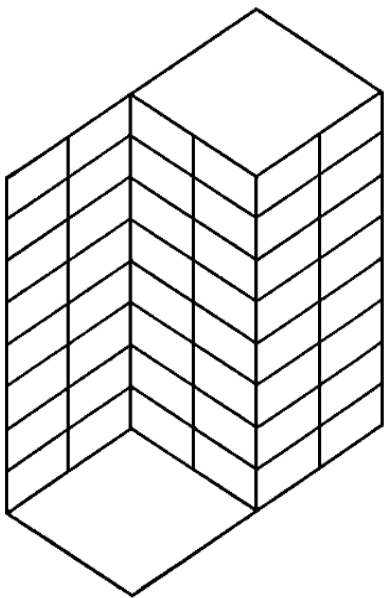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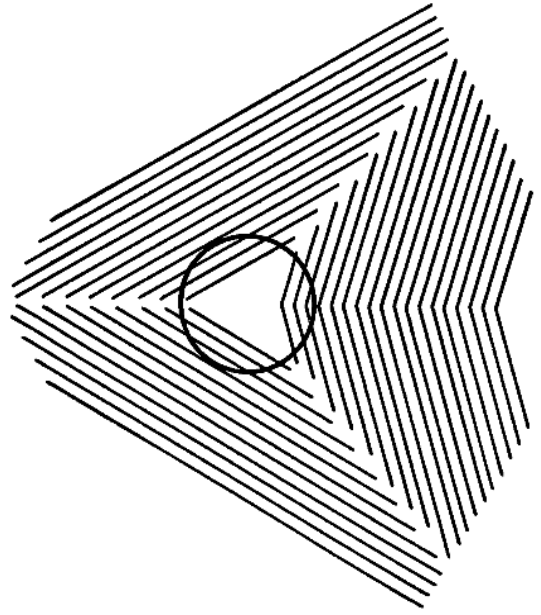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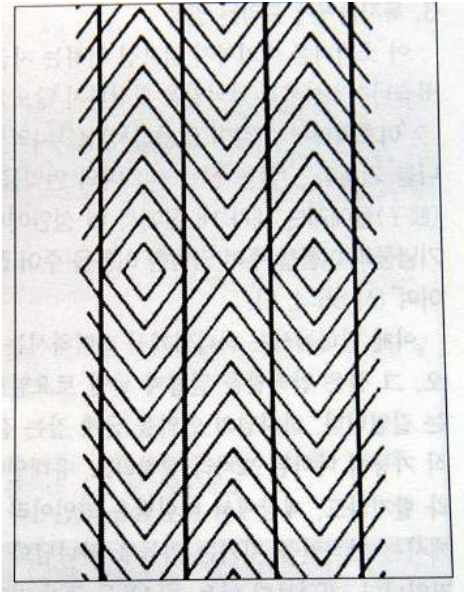


< 그림 3 >

“계단을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?”

아마도 늘 같은 칸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. 이 작품은 오스카 레우테르스베르드가 만든 것이다. 그는 ‘불가능한 도형의 아버지’라고 불린다.

< 선의 굴곡 현상을 유발시키는 착시 >



< 그림에 의한 착시현상 >

